

청주지역의 書院·祠宇

이 재 학*

- | | |
|---------------------|-----------------------|
| I. 머리말 | IV. 청주지역 書院·祠宇 건립의 성격 |
| II. 書院·祠宇의 기능과 차이점 | V. 맺음말 |
| III. 청주지역의 書院·祠宇 개관 | |

I. 머리말

조선을 건국한 新進士大夫는 국초부터 유교 논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를 구축하여 유교 정치의 기틀을 굳게 다져 나갔다. 성리학을 수용한 新進士大夫에 의해 건국된 조선왕조는 文臣들이 주도하는 文治主義 국가였고, 국가의 지배사상은 유교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은 유교적 소양을 지닌 양반들이었으며, 교육은 문관관료를 양성하는 유교교육이 중심이 되었다.¹⁾

이러한 교육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官學에서 주도하였지만 士族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私學도 적극 장려되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관학교육의 쇠퇴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書院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조선중기 書院은 鄉校를 대신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士林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士林세력이 鄉村社會에서 확고한 세력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 李成茂, 「朝鮮의 成均館과 書院」, 『韓國史市民講座』 18, 63쪽, 1996.

또한 書院은 향촌사회의 교화를 위해 실시된 鄉約 시행의 중심지였으며, 지방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출판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방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봉당정치가 심화됨에 따라 書院은 자파세력 규합을 위한 지역 士林 간의 갈등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문물제도가 정비된 성종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사림은 새로운 정치명분과 폭넓은 지지세력, 사림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여러 차례의 土禍를 거치면서 결국 사림은 16세기 이후 조선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서원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충청도 지역의 문화는 변방문화 내지 주변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율곡의 사상을 계승한 김장생과 송시열이 기호사림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충청도 지역의 문화는 전국을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충청도 지역의 서원과 사림에 대한 연구는 김장생과 송시열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되었고 청주지역은 연산·회덕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관계로 당연히 湖西士林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청주지역에 설립되었던 여러 書院의 설립자와 配享人物의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각 서원들이 설립될 수 있었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조선후기 호서사림 속에서 청주지역 사족의 동향은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청주지역 여러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구범위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청주와 청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조선시대 淸州牧 管轄로 청주와 깊이 관련되는 괴산군 지역의 일부 書院도 포함시켰다.

II. 書院·祠宇의 기능과 차이점

조선 중기 이후 사설 교육기관 내지 향촌 교화기구에는 書院·書齋·書堂·精舍 등과 祠宇·鄉賢祠·鄉祠宇·鄉祠·祠影堂·生祠堂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書院·祠宇로 구분하여 통칭되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祠院·院宇 또는 校院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書院·祠宇는 지방의 士林들에 의해 건립되었고, 국가에서는 右文政策의 일환으로 여기에 扁額을 내리고 토지·서적·노비 등을 지급하여 장려하였다.²⁾ 그리하여 宣祖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書院·祠宇가 설립되었다. 肅宗朝 이후에는 濫設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국가적인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본래 書院과 祠宇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은 다른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書院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世宗 때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시기의 書院은 先賢에 대한 奉祀의 기능 없이 단순히 講學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증중 조 白雲洞書院의 설립 이후 書院은 先賢에 대한 奉祀와 자제를 교육하는 講學의 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增補文獻備考』에

東國에 처음 書院이 없었는데 中宗 壬寅年(1542)에 故 參判 周世鵬이 풍기군수가 되어, 풍기의 속현 순흥에 고려 文成公 安裕의 예전 살던 곳이 있어서 주세붕이 그 터에 紹修書院을 창건하여 선비의 藏修하는 곳으로 삼았다.³⁾

라고 한 것이나

中宗 36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文成公 安裕의 옛 집터에 祠宇를 건

2)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88~89쪽.

3) 『增補文獻備考』 제209권, 附錄, 書院條.

립하고 봄과 가을에 享祀하였는데 명칭을 白雲書院이라고 하였다. 書院의 좌우에 서당이 있었는데 일반 서민들 중 준수한 자를 모아서 학문을 강습하였으며……4)

라고 한 데서 본래 書院은 유교적인 인재양성과 斯文의 진흥이라는 목적 하에 士子藏修, 先賢奉祀 및 講學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祠宇는 先賢 奉祀를 통한 향촌교화와 士族의 결속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莘巷書院과 黔潭書院 등의 원장을 지낸 陶菴 李緯는 黔潭書院의 儒生에게 답하는 글에서 書院은 독서를 하는 곳이며, 독서를 하지 않는 곳은 書院이 아니라 祠宇라고 하여5) 書院과 祠宇의 구분을 교육기능의 수행여부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書院과 祠宇의 본래 기능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書院과 祠宇에서 봄, 가을로 先賢에 대한 奉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은 선비들이 藏修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儀式이자 과정이었다. 祠宇 설립의 주된 목적은 분명 講學보다는 奉祀에 있었다.

祠宇의 연원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발생된 것은 고려 말 주자학의 전래 이후였다고 한다.6) 祠宇의 연원은 멀리 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 것 같다.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先祖·先賢崇拜思想의 표현인 祠宇는 이미 신라·고려시대부터 적지않게 건립되어 祠廟의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7) 즉 祠宇는 書院과는 달리 교육적 기능이 없었으며 단지 忠臣·殉節人·孝子 등 해당 지방이나 가문에서 뛰어난 공덕을 가진 자를 제향하는 祀賢의 기능만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듯 書院과 祠宇는 본래의 기능이 다른 것이었는데, 17

4) 『增補文獻備考』 제210권, 學校考9, 祠院總論.

5) 李緯, 『陶菴先生集』 卷21, 答黔潭院儒(癸亥).

6) 柳洪烈, 「朝鮮 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震檀學報』 5, 1936, 159쪽.

7) 全用宇,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湖西史學』 13, 1985, 3쪽.

세기 후반기와 18세기 전반기에 이르면 書院·祠宇가 다같이 전국에 보급되고 濫設 現狀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 원래의 개념이 달랐던 書院·祠宇가 혼용되고 있었으며, 용어상으로도 書院과 祠宇를 併記하는 현상이 적지않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⁸⁾

그러나 書院과 祠宇에서 祭享하는 인물에는 분명히 格의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書院에서는 유학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저명한 인물이나 충신으로서 師表가 될 만한 인물을 奉祀하는 데 비하여 祠宇에서는 지역적 人士나 家門의 인물을 내세워 奉祀하였던 것이다. 孝宗 8년 충청감사 徐必遠의 馳啓는 書院과 祠宇의 구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書院의 事體는 향교에 버금잡니다. 그런데 근래 조정에서 금하는 규칙이 없고 선비들에게 定論이 없는 것을 틈타서 욕심대로 하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書院으로 짓기에 부족한 것을 鄉賢祠라고 부르면서 서로 모방하여 날로 조금씩 번성하고 있는데 …… 書院과 鄉祠 중에서 서원으로 짓기 부족한 것은 향사로 강등하고, 향사로 짓기 부족한 것은 즉시 철거케 하십시오.⁹⁾

더욱이 書院의 설립이 많아지면서 書院에서 奉祀하는 인물의 格도 떨어지게 되었다. 仁祖 22년에 예조 판서 李植 등이 回啓하기를,

書院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사당을 세우고 높이 받들어 享祀할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한 시대에 밝게 알려져서 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해당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들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享祀되는 사람은 혹 당치 않은 인물이기도 하여, 祠院은 많으나 斯文은 더욱 침체해지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¹⁰⁾

8) 朴珠, 「朝鮮 肅宗朝의 祠宇濫設에 대한 考察」, 『韓國史論』 6, 1980, 173쪽.

9) 『孝宗實錄』 卷18, 효종 8년 6월 21日(壬辰).

10) 『仁祖實錄』 卷45, 인조 22년 8월 4日(己未).

라고 하여 書院의 폐단이 발생함은 물론 피봉사자의 격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祠宇에서도 講學을 위한 시설인 講堂이나 齋를 갖추게 되면서 부터는 외형상 書院과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이제 書院과 祠宇는 모두 祠堂과 講堂을 가지고 祭享과 講學의 활동을 하였다. 書院과 祠宇를 운영하는 士林들은 賜額을 받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祠宇가 賜額을 받아 書院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¹¹⁾ 따라서 조선 후기에 있어서 賜額되지 않은 書院과 祠宇를 엄격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書院이 급증하면서 賜額을 받지 못한 書院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賜額 여부로 書院과 祠宇를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설립한 세력이나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느냐에 의해서 書院과 祠宇가 구분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祠宇보다는 書院이기를 원했던 사실에서 書院이 祠宇보다는 분명히 우위에 있었다고 하겠다.

청주지역에서도 書院과 祠宇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인 菊溪祠宇의 경우 『列邑院宇事蹟』과 『增補文獻備考』 등에는 祠宇로, 『輿地圖書』 『忠淸道邑誌』 『東國院宇錄』 등에는 書院으로 기록되어 있어 두 가지의 호칭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덕천사우의 경우 “德川書院”이라는 직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체화당사우의 경우 고종 조 樾철을 면하기 위하여 암행어사에게 보낸 탄원서에 서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죽계사우의 경우는 정조 15년(1791)에 사우에서 서원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처음에는 사우로 건립되었다가 적당한 시기를 보아 서원으로 전환하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書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후손들은 모두 書

11) 重峰 趙憲을 모시는 沃川의 祠堂이 광해권 원년(1609) 表忠祠로 賜額을 받았는데 肅宗 때(1682)에 滄洲書院으로 다시 賜額을 받았다. 이후 滄洲書院은 西人 계열의 士林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追配를 하였다.

院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청주지역의 사우들은 스스로 사우보다는 서원임을 나타냈다. 이는 사우가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원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공헌하는 기구였음을 강조하고자 한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아무튼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원과 사우의 기능에 큰 차이가 없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Ⅲ. 청주지역의 書院 · 祠宇 개관

(1) 莘巷書院

莘巷書院은 호서지방에서 보은의 象賢書院¹²⁾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었다. 莘巷書院은 선조 3년(1570)에 趙綱, 李得胤, 卞景壽 등이 현재의 청주시 상당구 龍亭洞에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의 명칭은 설립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有定書院으로 불리웠고, 창건 당시의 제향 인물은 徵君 慶延, 江叟 朴蕪, 圭菴 宋麟壽였다.¹³⁾ 임진왜란으로 兵禍를 입은 후 다시 세우면서 冲庵 金淨을 追享하였다.¹⁴⁾ 처음 창건시는 祠와 기본적인 교육시설만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임진왜란으로 兵禍를 입은 후에 東西 兩齋를 새로 건축함으로써 書院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었던 것 같다.¹⁵⁾

12) 象賢書院은 명종 4년(1549)에 창건되었고 광해군 2년(1610)에 賜額되었다. 金淨과 成運을 並享하며 숙종 7년(1681) 成悌元 · 趙憲을 追享하였고, 숙종 21년(1695) 宋時烈을 다시 追享하였다.

13) 趙綱, 『蕪溪集』 卷一, 七, 「莘巷書院奉安三先生文」. 趙綱의 문집 『蕪溪集』은 그의 13대손 趙詰衡에 의해 고종 8년(1904)에 간행되었다. 3卷 2冊의 木活字本이다.

14) 密陽朴氏門中, 『國譯訥齋江叟先生遺稿』, 676쪽, 1996.

15) 李得胤, 『西溪集』 卷3, 「安心谷土地神文」. 李得胤의 문집 『西溪集』은 그의 6대손 李靜淵이 순조 34년(1834)에 간행한 것으로 4卷 2冊의 木活字本이다.

仁祖 10년(1632)에 松齋 韓忠을 追享하였고, 孝宗 1년(1650)에는 同春堂 宋浚吉이 통문을 보내어 泉谷 宋象賢¹⁶⁾과 西溪 李得胤을 追享하였으며,¹⁷⁾ 孝宗 7년(1656)에는 栗谷 李珥와 牧隱 李穡을 追享하였다.¹⁸⁾ 다음 해인 孝宗 8년(1657) 청주 유생 慶州李氏 李寅賓 등이 賜額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顯宗 1년(1660)에 莘巷이라는 賜額을 받음으로써 有定書院은 莘巷書院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액을 받은 莘巷書院은 白鹿洞書院의 규례에 따라 지금의 자리로 移建하여 書院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된다. 이때 金壽恒이 지은 移建上樑文에 “같은 당에 각기 따로 신위를 배설한 것은 道德의 고하의 차이를 나타냄이다. 한 중간에 가장 높이는 신위를 남면하여 배설하고……”¹⁹⁾하여 위치의 기준을 道德의 고하에 따라서 李珥를 主享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종 6년(1665)에 사당을 새로 지었는데 김창집과 채지홍이 중건상량문을 지었다. 현종 14년(1673)에는 강당을 새로 지었는데 이때 宋時烈이 講堂記와 莘巷書院記를 지었다. 이후 숙종 11년(1685) 宋時烈이 廟庭碑를 세움으로 해서 書院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된 莘巷書院은 華陽書院이 설립되기까지 100여 년 이상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書院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院生 30명, 自募生 30명을 두었던 莘巷書院은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에 의해 廢止되었는데 1957년 지방유지들에 의해 복원되어 신항서원 내의 사당인 九賢祠에서 봄, 가을로 아홉 선현을 제향하고 있다.²⁰⁾

16) 宋時烈撰, 『莘巷書院記』, 『莘巷書院誌』.

17) 莘巷書院, 『莘巷書院沿革』, 『莘巷書院誌』. 『莘巷書院誌』는 1976~1978년경 당시 신항서원 원장 故 朴允燮 院長이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석판본이다.

18) 密陽朴氏門中, 『國譯訥齋江叟遺稿』, 1996, 676쪽.

19) 金壽恒撰, 『莘巷書院賜額後移建上樑文』, 『莘巷書院誌』.

20) 『淸州鄕校誌』上, 610~611쪽, 1995.

(2) 龜溪書院

龜溪書院은 光海君 5년(1613)에 건립되었다.²¹⁾ 縣監 趙仁行과 辛景行 등이 士林들에게 通文을 보내어²²⁾ 忠淸左道 淸安縣에 창건하였다.²³⁾

『列邑院宇事蹟』에 戶曹佐郎을 지낸 樂齋 徐思遠(1550~1615), 保寧 縣監을 지낸 守庵 朴枝華(1513~1592), 槐山郡守를 지낸 西溪 李得胤(1553~1630) 등 세 인물을 配享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마치 書院의 창건과 함께 세 인물을 并享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李得胤(1553~1630)의 생몰 연대와 신경행(1547~1623)의 書院 설립 연대(1613)가 맞지 않기 때문에 李得胤은 書院을 창건한 이후에 追享된 것으로 보인다. 李得胤이 淸安현감을 지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계서원을 李得胤의 生祠堂으로 볼 수는 없다. 『列邑院宇事蹟』이 쓰여진 英祖 때에는 세 인물이 이미 配享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書院에서 配享되는 인물을 일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顯宗 7년(1666) 宋時烈의 門人인 黃處儉 등이 士林들에게 通文을 발하여 領議政을 지낸 李浚慶과 獻陵參奉 李塘을 제향하게 된다. 이 때 宋時烈에게 位次의 조정을 의뢰하여 李浚慶을 主享으로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을 配享으로 정하였다.²⁴⁾ 顯宗 7년(1666)은 1차 禮訟論爭에서 승리한 서인이 한창 세력을 떨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21) 『增補文獻備考』 제211권, 각도사원1, 忠淸道 淸安條. 그러나 淸安面誌(1997)에는 광해군 14년(1622)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2) 『列邑院宇事蹟』 3, 忠淸道 淸安縣 龜巖書院條.

23) 龜溪書院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 道安面 石谷里說(淸安面誌)과 淸安面 石谷里說(淸州鄕校誌)이 있는데 淸安面內에는 石谷里가 없다. 『輿地圖書』와 『忠淸道邑誌』 등에 淸安縣 남쪽 10리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淸安縣의 西北쪽인 道安 石谷里說 또한 옳지 않다. 淸安縣 남쪽 10리 지점은 오늘날 淸安面 文坊里에 해당되며, 龜巖이라는 마을도 있어 구계서원의 위치는 文坊里 일 가능성이 높다.

24) 『列邑院宇事蹟』 3, 忠淸道 淸安縣 龜巖書院條.

아래 기존의 제향인물을 물리치고 특별히 청안과 관련이 적은 李浚慶이 主享으로 제향되었던 것이었다. 청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李塘으로 그는 청안을 家鄉으로 하고 있었던 인물이다.²⁵⁾

書院 창건에 앞장선 辛景行은 李得胤의 부친인 李潛이 미원 水落洞에서 書堂을 운영하며 인재를 양성할 때 왕래 교류를 하였던²⁶⁾ 인물로 光海君 시절 정계에서 물러나 淸安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신경행은 李好閔,²⁷⁾ 최립²⁸⁾ 등과 교류를 하면서 지낸 사실로²⁹⁾ 보아 신경행의 당색은 親東人系列로 보인다. 龜溪書院에 配享되는 徐思遠 또한 鄭述 門人의 東人계열로 선조 28년(1595) 淸安縣監에 부임하여 학문의 진흥과 후진양성에 힘쓴 인물이다. 그리고 朴枝華는 徐敬德의 門人으로 儒佛道에 능했고 李得胤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래 구계서원은 동인계열의 士林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書院으로 생각되는데, 宋時烈의 영향력으로 인해 李浚慶을 主享으로 정하는 顯宗 7년을 前後한 시기에 서인계열의 士林들이 구계서원 운영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구계서원은 『輿地圖書』와 『列邑院宇事蹟』에는 龜巖書院으로 나오는 데³⁰⁾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945년 광복 후 도내 유림의 뜻을 모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으로 이전

25) 全用宇, 「湖西書院小考(Ⅰ)」, 『朝鮮前期論文選集 - 教育(2)』, 三貴文化社, 1997, 466쪽.

26) 慶州李氏 『家乘』(筆寫本).

27) 李好閔은 1607년 정인홍이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의혹을 일으키는 柳永慶 등 소북파를 탄핵하다가 처벌을 받자 정인홍을 위하여 변호상소를 올렸던 인물이다.

28) 최립은 許穆·趙綱 등 기호남인파도 깊은 관계를 가졌다. 이황 - 정구 - 허목으로 이어지는 기호남인 학통 수립에도 큰 구실을 하였던 정은이 1614년 영창대군 살해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請遷收鄭蘊輔外筭」를 올려 이들의 방면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29) 張錫英撰, 「辛景行神道碑」, 『淸安面誌』, 1997.

30) 이는 龜溪書院이 설립된 마을의 이름인 龜巖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李浚慶의 本孫인 광주이씨 李鍾郁이 거금을 내고 네 배향인물의 후손과 지역사립들의 협조로 함께 복원하여³¹⁾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魯鳳書院

白雲洞書院을 비롯한 많은 書院들이 절터에 세워졌던 것처럼 魯鳳書院도 문의현 치소에서 서쪽 15리 지점인 賢都山 아래의 石巖寺 옛터에 설립되었다.³²⁾ 노봉서원은 지역 士林인 生員 吳名立, 進士 柳興霖 등이 중심이 되어 圭菴 宋麟壽와 北窓 鄭礪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 서인계열의 서원이다. 乙巳名賢인 宋麟壽와 함께 배향된 鄭礪은 도교의학에 능했던 儒醫로 을사사화 후에 10년간 文義 老山里에서 은거한³³⁾ 인물이었다.

광해군 2년(1610)부터 祠宇 건립을 추진하여 광해군 7년(1615)에 준공을 보았는데 효종 8년(1657) 賜額을 청하여 莘巷·遜巖書院 등과 함께 허락을 얻었고,³⁴⁾ 현종 3년(1662)에 宜額되었다. 국가의 賜額을 받은 후 祠廟와 院規를 일신시키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숙종 13년(1687) 宋浚吉을 追享하였고, 숙종 20년(1694)에는 宋時烈을 追享하였다.³⁵⁾ 宋時烈은 宋麟壽의 從曾孫이다.

『文義鄉校誌』(1991刊)를 보면 宋浚吉과 宋時烈이 포함된 노봉서원의 靑衿錄이 있어 역대 院生의 명단을 알 수 있다. 모두 323명인데 생원·

31) 朴允燮, 『隱菴集』 卷之下, 記, 「龜溪書院重建記」, 1984.

32) 『忠清道邑誌』 文義縣條, 지금의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에 위치한다.

33) 『忠清道邑誌』 文義縣 寓居條 및 『朝鮮實輿勝覽』 忠清北道 淸州郡 學行條 참조.

34) 『孝宗實錄』에는 동왕 10년 윤3월 28일 신항서원, 필암서원, 연경서원, 송담서원, 화산서원과 함께 賜額되는 것으로 나온다.

35) 宋麟壽, 『圭菴集』 卷3, 附錄 「魯鳳書院廟庭碑」, “同春宋文正公追享 亦曾在丁卯 而乙亥 以其有院享疊設之禁 移奉于黔潭”.

진사가 21명, 官職(贈職 4명 제외)을 받은 사람은 13명으로 司馬 이상의 입격자 비율은 10.53% 정도였다. 청금록에 등재된 원생들 가운데 吳氏가 136명으로 전체의 4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봉서원의 근처가 寶城吳氏의 세거지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교육에 노봉서원이 큰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원생의 본관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晉州柳氏로 추정되는 원생이 26명으로 8.05%를, 恩津宋氏로 추정되는 원생이 22명으로 6.81%를 차지하여 寶城吳氏가 중심이 되고 晉州柳氏와 恩津宋氏가 이에 협력하면서 書院의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명된다. 高宗 9년(1872)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손되었다.³⁶⁾

(4) 松泉書院

松泉書院은 청주에서 서쪽 40리 지점인³⁷⁾ 오늘날 청원군 옥산면 환회리 송천마을에 설립되었다. 肅宗 21년(1695) 충청도 유생 朴世胄 등이 士林과 公議하여 창건하였고, 肅宗 37년(1711) 本道 儒生 李澤夏 등이 청액 상소를 올렸으나 윤희를 받지는 못하였다.³⁸⁾

송천서원은 청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물을 配享하고 있는 少論系 서원으로 현재는 모두 15인을 配享하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高麗朝의 金士廉(안동김씨), 朝鮮朝의 崔有慶(전주최씨), 李貞幹(전의의씨), 朴光佑(상주박씨), 李之忠(우봉이씨), 趙綱(한양조씨), 李大建(경주이씨) 등 일곱 인물을 모신 서원이었는데,³⁹⁾ 이들은 모두 청주지역에 세거하였

36) 『文義鄉校誌』 220쪽, 1991.

37) 『輿地圖書』 淸州牧, 壇廟條.

38) 『列邑院宇事蹟』 3, 松泉書院條.

39) 趙綱의 경우, 그의 문집인 『蕪溪集』 年譜의 기록과 沈喜壽가 지은 行狀 등에는 肅宗 丁亥年(肅宗 33년, 1707)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후 재조사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列邑院宇事蹟』과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던 사족가문들의 顯祖나 入鄉祖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다.⁴⁰⁾ 이는 청주지역에 정착한 사족가문들의 횡적 연대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종 3년(1723) 5월에 청주유생 朴守誨 등이 士林公議로 李濟臣, 崔錫鼎, 李寅燦 등 3人을 追享하였고,⁴¹⁾ 정조 22년(1798)에 南九萬, 朴文秀, 李宗城 등 3人을 追配하였으며, 순조 19년(1819)에는 李孝碩을 추배하여 제향하였는데 소론계 인물들을 많이 제향한 것은 송천서원이 소론계 정치세력과 연계되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院生은 15명을 두고 自募生 15명을 뽑아 운영하였는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훼철되었다. 1972년부터 金禹鉉, 朴允燮 등 도내의 儒林들이 발의하여 國費와 道費 및 유림들의 성금으로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에 復設하였는데 1976년에 위 열넷 인물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할 때 大司諫 贈戶曹判書 金汝亮을 추배하여 현재 모두 열다섯 인물을 제향하고 있다.

(5) 雙泉書院

雙泉書院은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양지마을에 있다. 肅宗 21년(1695) 청주유생 權瑞 등이 陳疏하여 청주의 대표적인 書院인 莘巷書院에 申湜을 合享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合享 允허를 받지 못하고 대신 쌍천서원을 세웠다.⁴²⁾

쌍천서원은 宣祖 때의 명신 贈吏曹判書 行大司憲 拙齋 申湜(1551~1623)을 獨享하였는데 원생은 15명을 두어 운영하였다. 申湜은 본관이 고령으로 申叔舟의 후손이었다. 16세 때 李滉의 門人으로 들어가 4년간

40) 이정우, 「17~18세기 淸州地方 士族動向과 書院鄕戰」, 『朝鮮時代史學報』 11, 114쪽, 1999.

41) 『列邑院宇事蹟』 3, 松泉書院條.

42) 『列邑院宇事蹟』 3, 雙泉書院條.

학문을 닦았는데 李滉 死後에는 成運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를 지내는 동안에 당시 학풍이 향교보다는 莘巷書院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校生과 院儒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감돌자 신식은 향교의 진흥을 위하여 10일마다 考試를 하는 등 관학 진흥에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⁴³⁾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春川 邑人들을 도와 李滉을 모시는 文巖書院을 창건하기도 하였다.

신식은 2남 4녀를 두었는데 두 아들이 서울에서 태어났고, 3명의 딸이 서울로 출가하는 것으로 보아 신식의 주 활동무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식의 부인은 李滉과 친했던 東人인 鄭惟吉의 손녀인데, 정유길은 西人계열인 金尙容·尙憲 형제의 외조부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복잡한 인척관계로 인하여 신식은 동인 계통의 인물이었지만 예학의 대가인 金長生·金尙憲 등 서인 계열의 인물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신식은 분명 東人·南人계열이었지만 정치적 색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달랐다. 신식의 외손자 李桂(全州李氏)는 對淸 外交面에서 主和派에 해당되는 인물로 諫官으로 있을 때 척화파인 김상헌 등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신식의 묘소가 청주에 있고 그 후손들이 청주에 많이 세거하게 되면서 신식의 후손들은 이후 청주에서 南人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肅宗 42년(1716) 신식의 손자 滄을 청주출신 유생 趙文彬, 金景稷, 朴載潤 등이 쌍천서원에 配享하려고 하였던 사실은⁴⁴⁾ 청주지역에서 南人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조 4년 청주에서 이인좌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식의 후손인 신천영은 난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43) 申哲雨, 「拙齋 申滉」, 『淸原文化』 제2호, 淸原文化院, 1993, 135쪽.

44) 『高靈申氏年表』(筆寫本), 연대미상.

(6) 黔潭書院

文義縣 서쪽으로 30리 지점에 宋浚吉의 별장이 있었는데, 黔潭書院은 바로 그 자리에 건립되었다. 현재의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에 위치한다. 肅宗 21년(1695)에 세우고 同春堂 宋浚吉을 제향하였는데 그 해 겨울에 賜額을 받았다.⁴⁵⁾

宋浚吉의 별장 이름은 保晩亭인데 宋浚吉이 만년에 회덕에 은거하며 遊息하고 講論하였던 장소였다. 본래 宋浚吉의 神主는 魯鳳書院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士林들이 獨享하기를 원하여 따로 사당을 짓게 된 것이라고⁴⁶⁾ 하고 있으나 사실은 숙종조 疊設禁止令으로 인하여 黔潭書院에 서만 독향하게 된 것이다.⁴⁷⁾

『列邑院宇事蹟』에는 肅宗 20년(1694) 保晩亭 옆에 祠堂을 세웠고, 다음 해 10월 노봉서원에서 奉行하던 송준길의 신주를 옮겨와서 祭享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⁴⁸⁾ 검담서원의 건립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宋浚吉의 신주를 모시기 前에 사당을 완공했지만, 노봉서원에서 신주를 옮겨와 配享을 시작한 시기(1695)를 설립시기로 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憲宗 10년(1844) 당시 院長인 宋來熙가 검담서원에서 『小學』을 강의할 때 200여 명이 모였고, 다음 해 鄉飲酒禮를 할 때는 400여 명 모였던 사실로⁴⁹⁾ 보아 당시 검담서원의 위세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고종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蕪絶을 당하였다.⁵⁰⁾ 현재 사

45) 『忠清道邑誌』 文義縣條.

46) 金元行撰, 『黔潭書院碑』, 『芙蓉面誌』 1994. 碑文은 宋浚吉의 현손 宋明欽이 썼다.

47) 宋麟壽, 『圭菴集』 卷3, 附錄 「魯鳳書院廟庭碑」, “同春宋文正公追享 亦曾在丁卯 而乙亥 以其有院享疊設之禁 移奉于黔潭”.

48) 『列邑院宇事蹟』 3, 黔潭書院條.

49) 宋來熙, 『錦谷先生文集』 年譜 참조.

50) 『芙蓉面誌』 138쪽, 清原郡郷土文化研究會, 1994.

당은 복원되지 못하였고 강당만 복원되었는데, 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된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집으로 “保晩亭”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7) 華陽書院과 萬東廟

華陽書院은 청주에서 동쪽으로 80리, 청천현에서 동으로 20리 지점인 오늘날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하고 있다.

화양서원은 宋時烈의 首弟子인 權尙夏에 의해서 창건된 書院이다. 宋時烈과 화양동과의 인연은 매우 깊다. 화양동은 宋時烈이 肅宗 7년(1666) 8월 화양동에 溪堂을 짓고 移居한 이래 肅宗 14년(1688) 4월 마지막으로 화양동을 떠날 때까지 무려 23번이나 왕래하면서 기거하였던 곳이다.⁵¹⁾

화양서원의 창건연대는 『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록이 肅宗 丙子年(1696)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華陽誌』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書院을 건립하였다 하더라도 위패를 奉安하고 제향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창건시기로 보고 있는데 화양서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즉 화양서원은 肅宗 21년(1695) 청천 도원리 침류정 아래 만경대에 宋時烈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던 것이다.⁵²⁾ 이는 『속중실록』 21년(1695) 12월 10일조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충청도의 生員 蔡之涵 등이 상소하여 先正臣 文正公 宋時烈의 書院에 賜額하기를 청하니, (書院은 淸州 華陽洞에 있다) 임금이 그 疏를 該曹에 내렸다.⁵³⁾

51) 吳甲均, 「華陽洞 史蹟에 對한 調查 報告」, 『歷史教育』 11·12, 歷史教育研究會, 1969, 339쪽.

52) 金榮振, 「華陽書院考」, 『淸州大學校 博物館報』 제10호, 淸州大學校 博物館, 1997, 6쪽.

53) 『肅宗實錄』 卷29, 肅宗 21年 12月 10日(戊戌).

즉, 충청도 생원 蔡之涵 등이 賜額을 요청하였던 사실로 보아 화양서원의 창건연대는 숙종 21년(1695)임이 정확한 것 같다. 결국 다음 해에 同知事 李畬의 賜額 건의에 따라 숙종은 “奉朝賀(宋時烈)는 다른 儒賢과 같지 않고, 華陽은 또 다른 곳에 건줄 것이 아니니, 특별히 賜額하라”⁵⁴⁾고 함으로써 만경대의 송시열서원은 화양서원으로 부르게 되었다.

숙종 29년(1703)에 權尙夏가 宋時烈의 遺志를 받들어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明의 神宗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을 모시기 위하여 화양동에 萬東廟를 세웠는데, 肅宗 35년(1709) 화양서원과 만동묘가 멀어서 왕래하기가 불편하고 오랫동안 서원을 수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權尙夏가 만동묘 아래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숙종은 42년(1716) 御筆로 화양서원의 편액을 써서 내려보내고 賜祭하였다. 이렇듯 숙종의 각별한 관심 속에 탄생한 화양서원은 만동묘와 表裏를 이루어 宋時烈을 제향한 많은 書院 중 가장 권위있는 집권세력의 본거지로서 당쟁의 소용돌이에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으며 畿湖士林의 구심점으로서 士論을 형성하고 公論을 주도하면서 조선후기 사회에 군림하였다.⁵⁵⁾

『華陽誌』에 나타나는 화양서원의 원장은 李秀彦, 權尙夏, 鄭澁, 閔鎮遠, 李宜顯, 李緯, 朴弼周, 閔應洙, 趙觀彬, 兪拓基, 金元行, 金亮行, 宋煥箕, 南公轍, 趙寅永 등 15명인데⁵⁶⁾ 대부분 활동무대가 청주지역을 벗어난 중앙정계의 老論계열 핵심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화양서원에서는 宋時烈의 위패가 아닌 影幀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宋時烈이 제작하여 학습용으로 사용되었다는 渾天儀도 있었던 것 같다.⁵⁷⁾

전국에 많은 書院이 있는데 특히 화양서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

54) 『肅宗實錄』卷30, 숙종 22年 9月 6日(己未).

55) 全用宇,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研究」, 『湖西史學』 18, 1990, 144쪽.

56) 『華陽淵源錄』에는 金亮行과 宋煥箕 사이의 2년 공백기에 宋德相과 金鍾秀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재임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57) http://yc.es.kr/museum/astro/ancient/ancient_index.htm

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종 때 朴齊炯이 지은 『近世朝鮮政鑑』에

士族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살게 하지마는 가장 심한 것은 書院에 모여 있다. 簡通 하나를 띄워 먹도장을 찍은 다음 고을에 보내서 書院 제수돈(祭需錢)을 바치도록 명령한다. 사족이나 평민을 물론하고 그 간통을 받으면 반드시 주머니를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자는 書院에 잡아다가 혹독한 형벌로 위협하는데 華陽洞書院 같은 곳은 그 권위가 더구나 강대하여 그곳 간통을 화양동 墨牌旨라 하였다. 백성들이 이미 탐학한 아전에게 시달리는데 다시 書院 유생들에게 침략을 당해서는 모두 살아날 수가 없어서 원망을 쌓고 이를 갈아도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⁵⁸⁾

라고 한 것과, 黃玟의 『梅泉野錄』에

萬東廟는 청주 화양동에 있는데, 묘를 창건한 것은 尤菴 宋時烈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옆에 尤菴의 祠堂을 세웠으니, 세상에서는 화양동 서원이라고 부른다. 書院의 책임을 맡은 자가 도내의 무뢰배들을 이끌고 墨牌로써 평민을 잡아다 때렸는데, 그들을 가리켜 껌질을 벗기고 골수까지 빨아먹는 南方의 좀이라고 불렀다. 백년이 지나도록 수령들은 그 무리들이 두려워 죄를 따지지 못했다.

雲峴(홍선대원군)이 젊었을 때에 이 書院에 들렀다가 院儒들에게 모욕을 당하여 크게 원한을 품어 왔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뒤에 그 儒生을 죽이고 그 書院을 철폐하라고 명하였다. 이것이 편파적인 행동으로 보일까 염려하여 전국에 있는 書院과 祠廟를 모두 철폐하라고 명하였다.⁵⁹⁾

58) 朴齊炯著, 李翼成譯, 『近世朝鮮政鑑 上』, 探求堂, 1981, 100~101쪽.

59) 黃玟, 『梅泉野錄』.

라고 하여 폄하한 것이 바로 화양서원을 조선후기 書院 폐해의 대명사로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書院의 폐단이 만동묘와 화양서원에만 있었고, 흥선대원군의 書院철폐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만 나왔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조선시대 사대주의 정책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동묘와 화양서원은 정부의 강력한 비호 아래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이는 丙子胡亂 후 의리정신의 계발과 실천에 앞장선 송시열의 尊周大義論이 조선후기 노론들에 의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尊周大義論을 곧 事大主義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욱이 한말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 의병활동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로 노론의 철학 사상을 계승한 유학자 출신들이었다는 사실은 화양서원과 만동묘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하고 있다.

아무튼 執事生 229명, 守護軍 30명, 齋直 7명을 두었던 萬東廟와 院生 30명, 自募生 30명, 齋直 7명을 두었던 화양서원은 고종 2년(1865)과 고종 7년(1870)에 각각 철폐되었다.⁶⁰⁾

(8) 機巖書院

機巖書院은 肅宗 25년(1699) 청주 유생 李駿翼 등이 陳疏하여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에 창건하였다.⁶¹⁾ 기암서원이 설립된 기암리는 姜栢年이 杖屨한 곳이자 後進을 양성하던 곳이었다.⁶²⁾ 文貞公 贈領議政 藝文館提學을 지낸 雪峰 姜栢年(1603~1681)을 獨享하다가, 순조 26년(1826) 承旨를 지낸 청백리 琴巖 吳燾(1602~1675)를 配享하였다.⁶³⁾

60) 金榮振, 앞의 논문, 11쪽, 1997.

61) 『列邑院宇事蹟』에는 李俊翼으로 나온다. 『俎豆錄』, 『東國院宇錄』 등의 필사본에는 肅宗 乙卯年(1675)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己를 乙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생각한다.

62) 盧章愚撰, 「機巖書院重建事蹟碑」, 『淸原郡誌』, 1990.

강백년은 충청감사 때에 호서지방에서는 처음으로 大同法을 시행하였다고 한다.⁶⁴⁾ 이 기암서원에 낭성면 갈산리 출신 학자인 吳燾를 추배하게 된 것은 1811년 10월 기암서원 醮享 때 書院에서 논의하여 이 고장 여러 書院에 吳燾의 추배를 요청하는 通文을 보내 15년 후인 1826년 각 書院 유림들의 公議에 따라 봉향된 것이라 한다.

院生은 15명을 두고 운영하였는데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해체되었다. 현재의 기암서원은 吳燾의 고향인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호평마을에 있는데 본래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강당마을에 있었던 것을 1984년 寶城吳氏 문중에서 이전하여 다시 세운 것이다. 매년 음력 3월 7일에 享祀하고 있다.

<표 1> 機巖書院 창건시 직제

지역	職制	인원	역할	계
京	摺紳都有司	20		38명
	生進有司	7		
	別有司	6		
	京掌議	2		
	錢穀有司	3	재정담당	
鄉	本齋都有司	7		39명
	掌議	2	院長	
	錢穀有司	3	재정담당	
	成造有司	12	건축담당	
	浮石有司	4	석재담당	
	求請有司	4	인사초빙	
	燔瓦都有司	7	기와담당	

기암서원 창건록을 보면 京鄉에서 모인 인원이 400여 명이나 된다. 참여한 주요 가문은 廣州李氏, 密陽朴氏, 宜寧南氏 등이었는데 창건 당시의 職制는 <표 1>과 같다. 京中摺紳都有司가 20명(관직을 가지고 있

63) 『增補文獻備考』 제211권, 各道祠院, 忠淸道, 淸州條.

64) 『國朝人物考』 1, 姜栢年條.

는 사람은 15명)이고 生進有司가 7명(모두 進士임), 別有司가 6명(進士 2, 生員4), 京掌議 2명(進士1, 生員1), 錢穀有司 3명(生員1, 進士2), 本齋都有司가 7명, 掌議 2명, 錢穀有司 3명, 成造有司 12명, 浮石有司 4명, 求請有司 4명, 燔尾都有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職制에 院長이란 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掌議가 원장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京人士가 38명, 鄉人士가 39명으로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어 중앙세력이 단지 상징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지방사족들과 긴밀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奉安 때 執禮는 진사 南漢明이 했고 初獻官은 청주목사 南尙熏, 亞獻官은 영암군수 李頤晩, 終獻官은 보은현감 趙鳴鳳이 담당하는 등 자과 출신의 현직관료들이 앞장서서 서원운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암서원 창건 때 京中搢紳都有司의 한 사람인 朴萬鼎과 本齋都有司를 담당한 朴徵萬은 정치적으로 少論인 尹鑣와 가까웠고,⁶⁵⁾ 執禮한 南漢明의 부친이자 초헌관 남상훈의 동생인 南益熏은 小北人으로 정치적으로는 少論인 尹鑣, 南人인 許穆과 같은 입장에 섰던 인물이었다.⁶⁶⁾ 또한 京中搢紳都有司를 담당한 李蕃晩은 亞獻官 李頤晩의 형으로 張禧嬪 所生의 세자책봉과 관련하여 宋時烈的 賜死를 주장하고 己巳換局을 일으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配享人物인 강백년의 아들 姜銑 역시 庚申大黜陟(1680)으로 삭직되었고, 기사환국으로 재등용되었다가 甲戌換局으로 다시 파직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기암서원은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少論, 南人, 北人계열의 士林들이 총결집하여 설립한 書院으로 파악된다.

기암서원 창건 당시의 學生位는 모두 217명이었는데, 창건록에 본관이나 거주지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掌議 李駿翼이 청주 유생이고, 草溪卞氏 卞時煥의 자손 6명이 청주지역의 인물들이므로

65) 『肅宗實錄』卷16, 숙종 11年 2月 18日(戊申).

66) 『肅宗實錄』卷4, 숙종 1年 6月 4日(辛酉).

보아 모두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書院의 학생수가 많은 것은 書院이 피역하기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이며 지역 士林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9) 鳳溪書院

鳳溪書院은 肅宗 28년(1702) 현재의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설립된 書院이다. 本州 進士 羅星運이 중심이 되어 士林 公論에 의해 창건되었다.⁶⁷⁾ 羅聖運은 安定羅氏로 그의 伯父인 羅萬紀는 莘巷書院 설립자인 李得胤의 門人이고, 李得胤의 큰어머니는 烈女로 유명한 安定羅氏이다.

봉계서원은 金宇暉를 주향으로 하고 申涌과 申濼을 配享하였는데, 英祖 36년(1760) 白鹿書院에서 제향하던 權常을 모셔와 합향하여 모두 네 인물을 제향하였다. 원생은 15명을 두었는데,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훼손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였다.

金宇暉(1540~1603)은 義城金氏로 曹植과 李滉의 두 문하를 출입한 인물이었다.⁶⁸⁾ 曹植은 처의 외조부였는데 그는 말년에 약 3년 가량을 청주에서 살았던 연고가 있다. 그는 柳成龍·金誠一 등과 가까워 정치적으로도 이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東人·南人으로서, 西人 鄭澈 등의 파직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선조 12년(1579)에는 李珣를 비난하는 정언 宋應洞에 맞서 李珣의 입장을 두둔하였던 것으로 보아 李珣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 같다. 그는 李滉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였고, 趙光祖를 제향하는 양주 도봉서원에 賜額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널리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여 선조 7년(1574)에는 鄭述를 천거하고, 선조 28년(1595)에는 郭再祐 등 33인을 천거하기

67) 『列邑院宇事蹟』 3, 鳳溪書院條.

68) 손병욱, 「수양과 실천의 통일·남명학파」,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0, 193쪽.

도 하였다.

申涌은 高靈申氏로 쌍천서원에 제향된 申湜의 아우이다. 그는 尹元衡 등이 일으킨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철원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경원에 안치되었다가 賜死되었다. 형인 신식과 같은 해에 賜死되었는데 선조의 즉위로 伸寃되어 직첩과 몰수된 재산을 돌려 받았다. 申灋은 신용의 손자로 효성이 아주 지극했던 인물이었다. 英祖 36년(1760)에 추배된 權常은 乙巳士禍로 賜死된 趙光祖 門人 羅湜, 羅淑 형제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으며, 그의 아들 權愷는 대사간으로 있을 때 成渾이 山林學者로 대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직을 삭탈하라고 주청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봉계서원은 東人·南人계열의 士林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0) 松溪書院

松溪書院은 肅宗 27년(1701) 卞時煥의 후손과 門人인 佐郎 朴敏來 등이 창건하여 다음 해인 肅宗 28년(1702) 흥덕현감을 지낸 卞時煥을 제향하기 시작하였다.⁶⁹⁾ 송계서원은 원생 15명과 자모생 15명을 두었는데 高宗 8년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당한 이후 1984년 후손과 유림들에 의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 2동(내곡동)에 복원되었다.⁷⁰⁾

書院에서 제향하고 있는 변시환은 草溪人으로 자는 輝卿 호는 一筇이다. 仁祖 13년(1635) 과거에 급제하고 흥덕현감을 지냈는데 清白吏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⁷¹⁾ 변시환은 姜栢年, 金益熙, 李德洙, 監司 李泰淵 등과 함께 서로 講習하며 道義로써 교류하였다. 李安訥, 李埴, 李慶全 등은 그의 文章을 흠모하기도 하였다.⁷²⁾ 이에 攄의 여러 선비들이 그의

69) 『列邑院宇事蹟』 3, 松溪書院條.

70) 『淸州鄉校誌』 上, 626쪽, 1995.

71) 『輿地圖書』淸州牧, 人物條.

72) 『列邑院宇事蹟』 3, 松溪書院條.

덕행을 尊慕하여 그의 杖屨之地에 사당을 세우게 된 것이다.⁷³⁾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을 보면 韓山李氏와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一節先生文集』의 行狀을 兪最基가 지었는데 그는 英祖 3년(1727) 丁未換局 때 少論의 巨頭인 李光佐를 탄핵하였고, 辛壬士禍로 죽은 老論의 거두인 金昌集, 李頤命의 伸冤을 꾀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변시환은 親西人계열에 해당되는 인물로 파악된다. 하지만 『一節先生文集』의 序文을 기암서원 창건시 京中搢紳都有司였던 朴萬鼎과 강백년의 아들 姜鏡이 지은 사실로 보아 송계서원의 건립과 운영은 소론계열이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11) 白麓書院

白麓書院은 肅宗 36년(1710)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洪重夏와 前縣監 申必源 등이 창건하여 權常을 제향했던 書院이다.⁷⁴⁾

洪重夏는 숙종조 일본과 울릉도 귀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接慰官이 되어, 일본사신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竹島가 우리나라의 울릉도임을 밝혀 왜인의 울릉도 내왕을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⁵⁾ 그의 당색을 정확히 파악할 자료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의 부친 洪萬宗은 李恒福의 門人인 鄭斗卿의 門人이었고, 1707년 그가 편찬한 『東國歷代總目』이 僭濫되고 權門에 의탁한다는 등의 죄목으로 持平 金時煥에 의하여 論啓되었을 때 崔錫鼎이 두둔하여 모면된 사실로⁷⁶⁾ 보아 南人 내지는 親少論계열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필원은 청주지역 南人계열인 高靈申氏로 체화당사우의 증건상량문을 지은 申必淸의 兄이자 봉계서원에서 제향하는 申溍의 아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백록서원은

73) 卞時煥, 『一節先生文集』 行狀 참조.

74) 『列邑院宇事蹟』 3, 白麓書院條.

75) 『肅宗實錄』 卷25, 숙종 19년 11월 18일(丁巳).

76) 『肅宗實錄』 卷45, 숙종 33년 7월 18日(戊辰); 同王 8月 2日(辛巳).

反西人계열의 士林들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종 8년(1871) 봉계서원이 철폐되자 1929년 안동권씨 문중에서 백록서원의 옛 자리인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景孝祠를 세워 權常을 제향하고 있다.

(12) 儉巖祠宇

儉巖祠宇는 肅宗 20년(1694) 지금의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검암마을에 설립된 祠宇이다. 검암사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주요 書院 관련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忠淸道邑誌』 淸州牧 軍摠條에 儉巖書院으로, 『朝鮮襄興勝覽』에 儉巖祠로 기록되어 있다. 검암사우가 왜 많은 기록에서 누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書院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 祠宇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검암사우에서는 趙憲, 韓日休, 池汝海, 申智益, 卞尙曾, 宋國憲, 申永植, 李東亨, 朴文古, 延最續 등 무려 열 인물을 配享하고 있는데⁷⁷⁾ 한일 휴의 墓表와 신지익의 墓碣을 宋時烈이 지었고, 宋栴壽의 손자인 宋國憲이 金長生의 門人인 점 그리고 延最續은 己巳換局 때 宋時烈을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던 인물이었다는 사실⁷⁸⁾ 등으로 보아 老論系列의 祠宇로 파악된다. 원생과 自募生을 각각 15명씩 두었는데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으로 폐철폐되었다. 1958년 청주지역의 유림들이 復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 德川祠宇

德川祠宇는 柳希齡 · 柳興龍 · 禹愼言 · 鄭應昌 등 4인을 제향했던 곳

77) 『朝鮮襄興勝覽』 淸州, 六, 院祠條.

78) 『朝鮮襄興勝覽』 淸 주면 참조.

이다. 肅宗 20년(1694) 宋浚吉의 門人인 宋元錫·縣監 黃世禎 등이 同春·尤菴 兩宋의 遺意를 받들어 塾翁 柳興龍을 享祀하기 위하여 舊文義縣 東面 古之洞에 창건하였다.⁷⁹⁾ 그 후 肅宗 45년(1719) 鄭應昌과 禹愼言을 追配하였다. 그리고 柳希齡은 본래 노봉서원에서 配享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덕천사우로 移配하였던 것 같다. 移配의 이유는 덕천사 현액의 용이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⁸⁰⁾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恩津宋氏 가문에서 노봉서원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유희령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增補文獻備考』에는 肅宗 21년(1695)에 건립되어 柳希齡·柳興龍·禹愼言·鄭應昌 등 4人을 並享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⁸¹⁾ 『文義鄉校誌』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희령(1480~1552)은 晉州柳氏로 宋麟壽의 門人이다. 己卯士禍 때 작은 아버지 柳仁淑이 화를 당하자 관직을 떠나 文山(현재 文義)에서 은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유희룡(1577~1656)은 유희령의 증손으로 宋浚吉·宋時烈과도 교분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의 門人은 무려 231명이나 되어⁸²⁾ 17세기 전반 청주지역에서 그의 학문적·사회적 영향력을 짐작케 하고 있다.

현재 사우는 유희룡의 후손들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데 후손에 의하면 덕천사우는 강당을 갖추고 있었으며 고종 5년(1868)에 철폐될 때 사우에서 사용하던 祭器 등을 모두 祠宇의 바닥에 묻었다고 한다.⁸³⁾ 현재 사우에서 사용하던 職印을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데 ‘德川書院’이라

79) 『文義鄉校誌』 240쪽, 1991. 『列邑院宇事蹟』 3, 忠淸道 文義縣 『德川祠宇事蹟』에는 文義 儒生 崔斗漢·韓文奎·李載 등이 창건하였다고 나온다. 이는 아마도 祠宇건설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치는 지금의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다.

80) 『文義鄉校誌』 240쪽.

81) 『增補文獻備考』 제211권, 各道祠院1, 忠淸道, 文義條.

82) 德川書院, 『德川書院略史』, 2000.

83) 이는 현재 노동리 里長이신 柳興龍의 10대손 柳海島 선생의 증언이다.

고 새겨져 있어 아마도 교육기능을 담당하면서부터 사우에서 서원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덕천사우는 三門과 祠堂을 갖추고 있는데 辛建澤, 金章會 등 지역 유림과 제향되는 4인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1967년에 복원한 것이다.

(14) 菊溪祠宇

菊溪祠宇는 肅宗 27년(1701) 지금의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국동마을(속칭 국골)에 淸州의 士林들이 宋時烈의 유지로 창건한 祠宇이다.⁸⁴⁾ 국제사우는 청주지역 老論들 중심의 祠宇로 配享人物은 朴薰의 부친인 校理 朴增榮, 莘巷書院 원장을 지낸 卞景福, 李德洙, 李秀彦 등 네 인물이다.

원생은 15명이었는데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지금의 국제사우는 1960년 卞景福의 후손인 草溪卞氏 一門이 거들의 세거지인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행정마을에 다시 세운 것이다.

(15) 棣華堂祠宇

棣華堂祠宇는 肅宗 27년(1701)에 지금의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書院 마을에 交河盧氏 一門에 의해 세워졌다. 선조 때 盧繼元·後元·從元·一元 네 형제의 孝友가 널리 알려지자 柳成龍이 영남에서 上京하는 길에 친히 그 孝友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宣祖께 알려 선조가 친필로 ‘棣華堂’이란 堂號 세 글자를 내려주어 살던 집에 걸게 함으로써 孝友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고 한다.⁸⁵⁾ 임진왜란으로 堂과 현판이 불타고 터만 남았던 것을 肅宗 27년(1701) 후손인 盧厚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옛 터

84) 『列邑院宇事蹟』 3, 菊溪祠宇條.

85) 『列邑院宇事蹟』 3, 棣華堂祠宇條.

에 사당을 세워 노계원을 위시한 네 형제를 제향하는 祠宇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⁸⁶⁾ 英祖 37년(1761)에는 盧德元을 追享하였고 원생은 17명을 두었다.

肅宗 27년 체화당 중건상량문을 高靈申氏 申必淸이 썼고, 4형제 중 셋째 아들 後元의 장남 克震의 부인이 左相 金應南의 손아래 누이인⁸⁷⁾ 점으로 보아 체화당사우는 南人계열의 祠宇로 파악된다.

고종조 서원철폐령이 내려져 黽철의 위기에 처해지자 체화당사우 측에서는 다른 鄉賢祠와는 다르고 宣祖로부터 堂號를 하사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철폐의 부당함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하였다.⁸⁸⁾ 그러나 결국 다른 書院·祠宇의 경우처럼 고종 8년(1871)에 黽철되었다. 이후 1967년 交河盧氏 후손들이 남일면 신송리에 재건하고 棣華書院으로 부르며 앞의 다섯 인물을 봄과 가을에 제향하고 있다.

조선후기 많은 書院·祠宇가 賜額을 요청하여 그 격을 높이려 했던 것처럼 체화당사우에서도 賜額을 받기 위한 노력을 벌였으나 끝내 賜額을 받지는 못하였다.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때에 堂과 현판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그 후손이 옛 터에 새로 지어 건물은 우뚝하나 편액은 빠져 있으며, 重建한 지가 오래되어 기둥이 기울고 무너졌다. 그리하여 지금 己卯年(1699) 봄에 후손인 진사 聖重, 유학인 聖龍, 達洙, 運河 등이 돈을 모아 중수하였다. 네 형제 자손이 해마다 한 번 이 堂에서 享祀하였는데 本州의 유생들이 늘 賜額의 은혜를 다시 받고자 관찰사와 어사의 행차시에 호소를 하였으나 아직도 上達되지 못하였다.⁸⁹⁾

86) 棣華書院, 『棣華堂開基祝文』, 『棣華書院誌』, 1994, 81쪽.

87) 『棣華書院誌』 24쪽.

88) 『棣華書院誌』 참조.

89) 『列邑院宇事蹟』 3, 棣華堂祠宇條.

라고 『列邑院宇事蹟』에는 기록되어 있다. 체화당사우가 賜額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書院·祠宇가 남설되어 書院에 대한 제재조치가 추진되는 시기인데다가 체화당사우가 盧氏 一門의 家廟的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이 체화당사우는 청주지역에서 유일하게 一族만이 주동이 되어 설립했던 祠宇로 파악되는데 운영에는 交河盧氏 일족만이 아니라 高靈申氏 등도 참여하고 있어 청주지역의 南人가문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表忠祠

三忠祠라고도 하는 表忠祠는 英祖 4년(1728) 청주에서 일어난 李麟佐의 亂⁹⁰⁾ 때 희생된 충청병사 李鳳祥, 營將 南延年, 李鳳祥의 裨將 洪霖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청주목사로 부임한 趙駿命이 주도하여 英祖 7년(1731) 청주읍성 북문 밖에 건립된 祠宇로 英祖 12년(1736)에 賜額을 받았다.⁹¹⁾

英祖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설립된 표충사의 창건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祠役扶助錄과 碑役扶助錄에 잘 나타나 있다. 祠役扶助錄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은 호조판서 金東弼(文), 훈련대장 張鵬翼, 어영대장 魚有龜, 총융대장 趙儻, 本道監司 申昉(文), 本道兵使 魚有琦, 本道水使 尹宅鼎, 경상감사 趙顯命(文), 통제사 李遂良·鄭壽松, 전라수사 李重新, 평안병사 金滄이다.⁹²⁾ 이들은 모두 관직에 있는 인물들로서 대부분이 武官이었다. 이인좌의 난으로 희생된 주요 인물이 무관이었기 때문에 同病相憐의 마음으로 부조하였던 것 같다. 또한 少論에 의해 희생된 인물을 제향하는 祠宇를 少論계열인 조준명이 앞장서서 세

90) 李麟佐는 淸州 松面 출신이며 이 난을 청주에서는 申天永의 亂으로 부르기도 한다.

91) 『增補文獻備考』 제211권, 各道祠院1, 忠淸道, 表忠祠條.

92) 淸州表忠祠編, 『戊申奮武錄』, 1994, 238~241쪽.

운 것은 위기감을 느낀 少論의 자구책도 포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표충사의 원장은 閔鎮遠, 李緯, 閔應洙, 金在魯, 閔應植, 閔泳殷 등이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³⁾ 민진원과 이재는 華陽書院과 莘巷書院의 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던 인물이었는데 모두 老論세력이었다. 특히 한말까지 민씨 일족이 원장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충사는 院生 20명, 自募生 30명, 齋直 10명, 使喚 15명, 祠直 1명을 두었고 고종조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청주지역의 유일한 祠宇였다.

(17) 기타

숙종 42년(1717) 李得胤을 主후으로 하는 玉華書院이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 설립되었다.⁹⁴⁾ 이곳은 이득운이 講學을 실시하였던 곳이다.⁹⁵⁾ 이 서원은 노론계열의 서원으로 후에 尹承任, 朴坤元, 尹師哲을 차례로 追配하여 모두 네 인물을 모셨는데 고종 8년(1871)에 훼손되었다. 지금은 복원되어 사당에 崇賢祠, 입구의 솟을 삼문에 玉華書院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숙종 36년(1710) 韓山李氏 李穡의 자손들이 그들의 세거지인 청주 주성동에 창건한 牧隱影堂이 있다.⁹⁶⁾ 肅宗 40년(1714)에 牧隱 李穡의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강당까지 갖추고 있어 교육기능까지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影楨 奉安文은 蔡之洪이 썼는데⁹⁷⁾ 이러한 사실은 청주지역에서 韓山李氏 가문과 仁川蔡氏 가문이 16세기 후반부터 계속 가까운

93) 淸州表忠祠編, 『戊申奮武錄』, 1994, 243~246쪽.

94) 길경태, 「忠北의 書院」, 『毀撤書院調查報告』,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84쪽.

95) 慶州李氏 『家乘』.

96) 『列邑院宇事蹟』 3, 牧隱影堂條.

97) 『韓山李氏麟齋公派世譜』 卷之一, 世德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시 淸安縣 관내에 설립된 祠宇로 竹溪祠가 있는데 여러 문헌에는 鄉祠宇로 기록되어 있다.⁹⁸⁾ 죽계사는 영조 14년(1738) 금성대군의 10대 손 李震秀에 의해 설립되어 금성대군 瑜와 순흥부사 李甫欽을 제향하였다.⁹⁹⁾ 이후 정조 15년(1791) 죽계서원으로 현판을 달았고, 다음 해에는 안평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을 추향하였다. 고종 8년(1871) 훼손되었고, 1960년에 복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⁰⁰⁾ 현재 강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서원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능도 담당하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IV. 청주지역 書院·祠宇 건립의 성격

청주지역에서의 書院 건립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급증 양상을 보이는 것은 肅宗대에 와서였다. 莘巷書院과 龜溪書院의 경우 설립자의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대체로 一鄉士林의 公議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孝宗대 이후 중앙정계에서 金長生門人の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청주지역에서도 宋時烈과 宋浚吉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宋時烈과 宋浚吉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 孝宗 7년(1656) 莘巷書院에 李珥와 李穡을 追享하였고, 顯宗 1년(1660)에는 賜額까지 받았다. 이어서 顯宗 3년(1662) 文義의 노봉서원에 宣額이 실시되고, 顯宗 6년(1665)에는 莘巷書院에 새로 사당을 지어 李珥를 다른 祭享者들과 구별하여 主享으로 位次를 조정하기까지 하였다. 다음 해에는 淸安의 구계서원에 李浚慶을 主享으로 配享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청주지역에서 宋時烈·宋浚吉의 영향력 증

98) 李定求, 『四千年文獻通考』, 東明社, 1927에는 竹溪祠로 기록되어 있다.

99) 『增補文獻備考』 제211권, 各道祠院1, 忠淸道 淸安條.

100) 竹溪書院誌編輯委員會, 『竹溪書院沿革』, 『竹溪書院誌』, 回想社, 1997.

대에 위기감을 느낀 反西人系 士族들은 莘巷書院에서 李珣의 位次問題를 놓고 宋時烈과 심한 갈등을 나타내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忠州池氏 池若海 後嗣問題였다. 肅宗 6년(1680) 庚申換局으로 南人을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은 南人에 대한 처벌수준의 차이와 懷尼是非 등으로 肅宗 9년(1683) 老·少論의 분열을 맞게 된다.

莘巷書院에서 反西人系 사족들의 강력한 반발과 老·少論 分岐의 정치적 분열 속에서 宋時烈은 肅宗 11년(1685)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확립과 아울러 位次問題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莘巷書院에 廟庭碑를 세우게 되었다. 宋時烈의 廟庭碑 건립은 그의 사후 莘巷書院의 원장을 역임하는 老論系 원장들에게 위차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肅宗 15년(1689) 세자책봉 문제로 老論이 실각하고 南人이 집권하는 己巳換局으로 宋時烈은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결국 賜死된다. 그러나 얼마 후 甲戌換局(1694)으로 南人이 몰락하고 老論이 재집권하게 되어 결국 南人은 이를 계기로 중앙정계에서 몰락하게 되었다.¹⁰¹⁾ 이때 少論인 남구만이 영의정으로 기용되어 少論의 정치적 입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으나 중앙정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宋時烈 사후 莘巷書院의 원장직은 閔鎮長, 權尙夏 등 그의 門人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宋時烈을 계기로 書院의 주도권이 西人·老論에게 돌아갔던 것 같다. 이들 老論세력들은 莘巷書院에서 少論·南人세력들을 배제시키려 하였고, 肅宗 20년(1694)에는 검암사우를 건립하여 趙憲, 韓日休, 池汝海 등 대거 열 인물을 제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봉서원에 宋時烈의 追享을 실시하였고, 文義에 검담서원을 세워 宋浚吉을 配享하고 賜額까지 받아 내었다. 또한 청주지역 老論세력인 晉州 柳氏 가문도 文義에 德川祠를 세워 자기 가문의 顯祖를 제향하였다. 이러한 老論세력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肅宗 21년(1695) 南人들은 申湜을

101)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9, 72쪽.

莘巷書院에 配享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쌍천서원을 설립하여 申湜을 獨享하였다.

이러한 高靈申氏 南人들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어 反老論系의 少論·南人 가문들은 대규모로 연합하여 당시 少論의 영수인 崔錫鼎의 주도하에 송천서원을 건립하였다. 송천서원 건립에 참여한 가문은 安東金氏·全州崔氏·全義李氏·慶州李氏·尙州朴氏 등이었는데 송천서원의 건립으로 청주지역에서는 老論 對 少論·南人이라는 兩黨 구도가 형성되어 팽팽한 세력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少論·南人의 반격에 맞서 다시 老論세력은 權尙夏의 주도하에 화양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仁川蔡氏 등 청주지역 老論家門들이 적극 가담하였다. 화양서원의 건립은 청주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西人·老論세력의 무게 중심이 신항서원에서 화양서원으로 옮겨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화양서원에 대한 肅宗의 각별한 관심으로 청주지역에서 老論이 우위를 점해가는 가운데 또다시 書院·祠宇 건립의 경쟁이 불붙는다. 숙종 25년(1699) 청주지역의 少論·南人·小北系列의 士林들은 老論세력에 맞서 중앙의 자파세력과 연계하여 기암서원을 세웠던 것이다.

기암서원의 건립은 신항서원이 老論化되고 또한 화양서원의 건립에 자극받은 反老論세력이 총결집하여 세운 서원이었다. 2년 후인 肅宗 27년(1701)에는 尤菴 宋時烈의 유지를 받들어 密陽朴氏·草溪卞氏·韓山李氏의 老論系 세 가문이 연합하여 菊溪祠宇를 건립하였다. 이 시기 南人계열인 交河盧氏 一門은 高靈申氏의 지지 속에서 체화당사우를 세웠다. 또 다음 해 南인과 少論들은 각각 봉계서원과 송계서원을 세워 청주지역에서 자파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후 숙종 43년(1717) 노론가문인 경주이씨 이득운 가문·함양박씨·파평윤씨 가문은 이득운의 강화처였던 옥화대에 옥화서원을 세워 문중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표 2> 청주지역의 書院 · 祠宇의 配享人物과 정치적 성격

명칭	설립시기 <사액시기>	배향 인물	黨色	원위치	현위치	복원 여부	문화재 지정 여부
莘巷書院	선조 3년(1570) <현종 1년 (1660)>	宋麟壽 慶延 朴薰 (1570) 金淨(?) 韓忠(仁祖 20, 1642) 宋象賢 李得胤 (孝宗 원년, 1650) 李珥 李穡(孝宗 7, 1656)	? → 西人	청주 용정동 124	청주 용정동 120	복원	도지정 기념물 42호
龜溪書院	광해 5년(1613)	徐思遠 朴枝華 (1613) 李得胤(?) 李浚慶 李瑋 (顯宗 7, 1666)	東人 → 西人	清安縣 南十里	청주 분명동	복원	
魯峰書院	광해 7년(1615) <현종 9년 (1668)>	宋麟壽 鄭礪 宋時烈	西人	현도 하석리			
松泉書院	숙종 21년(1695)	金士廉 崔有慶 李貞幹 朴光佑 李之忠 趙綱 李大建(1695) 李濟臣 崔錫鼎 李寅燦(경종 3, 1723) 南九萬 朴文秀 李宗城(정조22, 1798) 李孝碩(순조19, 1819) 金汝亮(1976)	少論	옥산 환희리	오창 양지리	복원	
雙泉書院	숙종 21년(1695)	申湜	南人	낭성 무성리	낭성 무성리	복원	
黔潭書院	숙종 21 (1695) <숙종 21년 (1695)>	宋俊吉	老論	부용 금호리	부용 금호리	복원	
華陽書院	숙종 21년(1695) <숙종 22년 (1696)>	宋時烈	老論	淸州牧 화양동	괴산 화양동		
機巖書院	숙종 25년(1699)	姜栢年(1699) 吳燾(순조 26, 1826)	少論 南人	오창 기암리	낭성 갈산리	복원	

書院	鳳溪書院	숙종 28년(1702)	金字順 申涌 申濬	南人	청주 월오동			
	松溪書院	숙종 28년(1702)	卞時煥	少論	청주 내곡동	청주 내곡동	복원	
	白鹿書院	숙종 36년(1710)	權常	南人	옥산 환회리	옥산 환회리	복원	
	玉華書院	숙종 43년(1717)	李得胤 尹承任 朴坤元 尹師哲	老論	미원 옥화리	미원 옥화리	복원	
祠宇	儉巖祠宇	숙종 20년(1694)	趙憲 韓日休 池汝海 申之益 卞尙會 宋國憲 申永樞 李東亨 朴文古 延叢瓚	老論	가덕 병암리	가덕 병암리	복원	
	德川祠宇	숙종 21년(1695)	柳希齡 柳興龍 禹慎言 鄭應昌	老論	文義縣 內	가덕 노동리	복원	
	菊溪祠宇	숙종 27년(1701)	朴增榮 卞景福 李德洙 李秀彦	老論	내수 국동리	내수 비중리	복원	
	棣花堂 祠宇	숙종 27년(1701)	盧繼元 盧後元 盧從元 盧一元	南人	남일 가산리	남일 신송리	복원	도지정 기념물 73호
	牧隱影堂	숙종 36년(1710)	李穡	老論	청주 주성동	청주 주성동	현존	도지정 문화재 자료 17호
	萬東廟	숙종 30년(1704) <정조 즉위 (1776)>	神宗 毅宗	老論	淸州牧 화양동	괴산 화양동		
	表忠祠	영조 7년(1731) <영조 12년 (1736)>	李鳳祥 南延年 洪霖	老論	淸州邑 城北門 밖	청주 수동	현존	시도 기념물 17호
	竹溪祠	영조 14년(1738)	李璣 李甫欽 外 4人		淸安縣 內	북이 용계리	복원	

* <>는 사액시기를 나타낸 것이며, 일부라도 복원된 것은 복원으로 표기하였다.

청주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주체를 보면 초기에는 대체로 門人을 중심으로 한 사림의 公議로 설립되었던 것이 점차 후손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와는 달리 17세기 중엽 이후 향촌사회에서 친족의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族契의 조직, 문중서원

의 건립 등 다양한 문중활동이 전개되었는데¹⁰²⁾ 청주지역에서도 쌍천서원·검담서원·송계서원·백록서원·체화당사우 등 一門의 顯祖를 제향하는 서원·사우가 다수 건립되어 문중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시기별로 본 配享人物과 書院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청주지역 20개의 서원·사우를 건립한 세력을 놓고 볼 때 대략 노론계열의 서원·사우가 10개소, 반노론계열의 그것이 8개소, 불명이 2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노론세력이 다소 우위를 점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노론과 반노론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액을 받은 서원은 모두 서인·노론세력과 관련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신항서원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노봉서원·검담서원·화양서원은 송시열이나 송준길을 제향하는 서원으로서 사액을 받은 것이었다. 사액을 받은 祠宇인 만동묘와 표충사 또한 집권세력인 노론의 정치적 의도 속에서 설립되어 사액된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숙종조 청주지역의 書院·祠宇濫設은 충청지역 書院·祠宇의 濫設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16세기 후반에 신항서원 하나만 세워졌던 청주지역에 17세기 전반에는 서원이 2개소가 세워졌다. 다음으로 당쟁이 치열해져서 몇 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던 17세기 후반에는 서원 5개소와 사우 2개소를 더하여 7개소가 세워졌다. 마지막으로 老論이 점점 득세하면서 少論이 이를 견제하던 숙종 말년 이후 18세기 전반에는 청주지역에 서원 4개소와 사우 6개소를 더하여 10개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여 청주지역에는 16세기 후반 이후 18세기 전반까지 약 200년 동안에 서원 12개소에 사우 8개소를 더하여 약 20개소의 서원과 사우가 남설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16세기 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약 250년간 충청지역에는 서원이 58개소, 사우가 37개소 세워져서 총수 95개소나 되었다. 이렇게 보면 16세기 이

102) 李海濬,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한국사 34』, 167쪽, 국사편찬위원회, 1995.

후 청주지역의 서원·사우 총수 20개소는 충청지역 그것의 약 21.1%에 해당하였다.

<표 3> 시기별로 본 충청도 지역의 書院·祠宇

시기별	지역별	書院		祠宇		忠淸合計
		충청도	청주	충청도	청주	
16세기	1500~1549	1				1
	1550~1599	7	(1)	3		10
17세기	1600~1649	11	(2)	2		13
	1650~1699	24	(5)	11	(2)	35
18세기	1700~1749	15	(4)	17	(6)	32
	1750~1799					0
19세기	1800~					0
연대미상				2		2
前朝				2		2
合計		58	(12)	37	(8)	95

* 이 표는 『增補文獻備考』를 기준으로 하였고, 『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지 않은 청주지역의 書院 2곳과 祠宇 3곳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청주지역에서는 老論 對 反老論(少論·南人)이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肅宗 20년(1694)에서 肅宗 28년(1702) 사이에 경쟁적으로 書院·祠宇를 건립하였다. 이는 청주지역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사족 간의 鄉戰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科田法이 중단된 이후 토지에 대한 私的 소유권이 허용되어 토지매매가 성행하였고, 이를 통한 土族들의 토지집적 현상이 팽창해 가던 때였다.¹⁰³⁾ 청주지역의 여러 書院·祠宇가 美湖川邊에 설립된 것은 충청도지방에도 移秧法이 보급되고 이모작이 가능했던 시기에¹⁰⁴⁾ 증가된 土族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

103) 趙璣濬, 『朝鮮後期 農業史 研究現況』, 『朝鮮後期 社會經濟史研究入門』, 民族文化社, 1991, 39쪽.

104) 韓祐勗,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88, 319쪽.

<표 4> 書院·祠宇의 시기별·지역별 건립분포

時期	地域	京畿	忠清	全羅	慶尙	江原	黃海	咸鏡	平安	合計	清州 地域
	中宗이전		(2)	(1)	1	(3)		(2)	(1)	(3)	1(12)
中宗				1	2(1)						
仁宗											
明宗		1	1	1	8	1	1	2	1	16	
宣祖		6(3)	7(2)	13(10)	27(5)		7(1)	1(2)	3(4)	64(27)	1
光海君		2	7	5(4)	14(2)	2	1	1(1)		32(7)	2
仁祖		2(2)	5(1)	6(7)	13(8)	2(3)	(1)	1(1)	1(2)	30(25)	
孝宗		5	1(1)	5(3)	10(2)	2(2)	3	(1)	1	27(9)	
顯宗		6(1)	8(3)	8(4)	18(4)	(3)	2	5(3)	5(1)	52(19)	
肅宗	1~17	12(3)	4	1(10)	14(10)	2(4)	2(1)		2(6)	37(34)	
	18~39	8(4)	20(25)	23(25)	59(34)	2(2)	3(5)	2(6)	5(14)	122(115)	8(6)
	40~46	(2)	6(4)	4(2)	5(4)	(1)	(3)	(1)	(3)	15(20)	1
景宗		(1)	3(2)	3(3)	3(3)	1(2)	(1)	(2)	(3)	10(17)	
英祖	1~16	1(6)	1(12)	2(18)	8(37)	2(11)	1(14)	2(9)	2(14)	19(121)	(2)
	17~52	(1)		2(2)	1(2)	(2)	(1)			3(8)	
正祖		1(4)		2	1(2)		1	1		6(6)	
純祖		2		(1)						2(1)	
憲宗		(1)			1					1(1)	
年代未詳		(5)	1(10)	4(42)	9(8)	4(7)	1(1)	6(3)	(5)	25(81)	
合計		46(35)	64(61)	81 (131)	193 (125)	18(37)	22(30)	21(30)	20(55)	465(504)	12(8)
毀撤後		8(4)	2(3)	2(1)	10(4)	2(1)	2(2)	1	(5)	27(20)	(1)

* 위의 표는 全用字, 『朝鮮朝 書院·祠宇에 대한 一考察』, 『湖西史學』 13, 5쪽, 1985를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는 祠宇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은 擇里誌에 청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肅宗 시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書院·祠宇의 남설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肅宗에서 正祖대에 宋時烈을 제향하는 전국의 書院·祠宇가 70여 개나 되었던 것과는¹⁰⁵⁾ 달리 청주지역에서는 魯鳳書院에 追享되고 華陽書院이

105) 崔權默, 『尤庵 宋時烈의 書院·祠宇 享祀』, 『于江權兌遠教授 停年紀念論叢』, 1994, 436쪽.

건립된 것뿐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老論세력에 대한 청주지역 士林들의 반발이 거세었다는 사실을 反證하는 것이며, 영조 4년(1728) 청주를 중심으로 이인좌의 난이 발생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청주지역에 설립된 書院과 祠宇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래 서원과 사우에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달랐지만 숙종조 서원·사우가 남설되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 서원에서 제향하는 인물의 격이 떨어져 사우에서의 제향 인물과 큰 차이가 없어졌고, 사우에서도 강학시설인 강당을 마련하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원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청주지역에 존재했던 20여 곳의 서원·사우에서 배향했던 인물들은 대부분이 재지사족 가문의 顯祖였다. 두 곳 이상의 서원에서 배향된 인물은 송시열, 송준길, 이득운 등 3인으로 나타나 兩宋의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득운 또한 지역사회에서 대단한 인물로 추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지역의 서원·사우는 조선후기 중앙정계의 변화 속에서 사족 간의 연대로 설립·운영되는 봉당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배향인물들의 격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이·송시열 등 격이 높은 大賢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제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관료들 중심으로 설립되어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반영하였던 表忠祠를 제외한 모든 서원·사우가 고종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신항서원을 시작으로 청주지역에 건립된 서원·사우는 대략 20개소 정도로 충청지역의 그것에 약 21% 정도에 해당되었으며, 그 중 15개소가 숙종 20년(1694)에서 숙종 28년(1702) 사이 노론세력 대 반노론세력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대략 노론계열의 서

원·사우가 10개소, 반노론계열의 그것이 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전국적으로 서원·사우가 남설되었던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사우가 많이 설립되었던 것과는 달리 청주지역 내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청주지역 내에 반노론적 정서가 팽배해 있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하지만 결국 숙종대 후반 이후 노론 우위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청주지역도 노론 우세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영조 4년 청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인좌의 난은 이러한 노론 우세의 분위기 속에서 잠재된 소론·남인의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청주지역 사림의 성향을 막연히 서인계열로 취급하거나 또는 호서사림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개별서원에 대한 연구는 서원을 기반으로 중앙세력과 연계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었던 사족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특히 청주지역의 경우 부족한 사료의 발굴과 함께 개별서원에 대한 사례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Abstract

Seowon(書院) and Sawoo(祠宇) in Cheongju(淸州) Area

Lee, Jae Ha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Seowon(書院), the private Confucian academies and Sawoo(祠宇), the memorial halls in Cheong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Originally, in both the purposes of foundation and the func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owon, the private Confucian academies, and Sawoo, the memorial halls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After the time of King Sukjong(肅宗),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those made it difficult to divide them. The reasons were that the status of the subjects to whom Seowon performed memorial services fell off, those figures becoming as same as Sawoo's, and that Sawoo, while carrying out the function of teaching with its new facility Gangdang(講堂), was changed into like Seowon.

The first Seowon established around the Cheongju area was the Shinhang Seowon(莘巷書院) that was founded at the 3th of King Sonjo(宣祖)'s period (1570). It's influence was strengthened as it gained the hanging board, which implied authorization from the dynasty, through the political power of Song Si Yeol(宋時烈) and Song Jun Gil(宋浚吉) who had, based on Shinhang Seowon, been expanding their influences into the Cheongju area.

The subjects honored from about 20 of Seowon and Sawoo were almost the influential ancestry of local literati in their family. As the three persons of Song Si Yeol, Song Jun Gil and Lee Deuk Yun(李得胤) were respected from more than two Seowon, we may know Song Si Yeol and Song Jun Gil were very powerful and Lee Deuk Yun was also revered in the local community. Seowon and Sawoo in the Cheongju area functioned as a central axis for the

local literati to closely bond together along factional lines among the changes of the late Joseon Dynasty's politics, and even the status of the figures they honored were not so great. Because great persons such as Lee Yi(李珥) and Song Si Yeol were honored even in other provinces, all of Seowon and Sawoo were closed by the 'Removal Act of Seowon' at the time of King Gojong(高宗) except 'Phyochoongsa(表忠祠)' that was established by current officials and reflected legitimate succession of the throne.

About 20 of Seowon and Sawoo were founded in the Cheongju a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Shinhang Seowon, comprising about 21% of those in the Chungcheong province(忠清道), and 15 of the 20 were built from the 20th(1694) year to the 28th(1702) year of King Sukjong in the stream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faction for Noron(老論, Old Doctrines) and the faction against Noron. It has been known that there were 10 of Seowon and Sawoo in the Noron line and 8 of those in the anti-Noron line. Though this corresponded with the fact that Seowon and Sawoo were nationally established around the time, it reflected the fact that many of those having a memorial service for Song Si Yeol were set up across the country but not in the Cheongju area. It demonstrates that there were much in the atmosphere of the anti-Noron in the Cheongju area. However, the overall Noron power was finally spreaded even to the Cheongju area under the political control of Noron after the late of Sukjong's reign. 'The rebellion of Lee In Jwa(李麟佐)' occurred in Cheongju at the 4th of Yeongjo(英祖)'s period was an incident that we may see the potential complaints coming out of Soron(少論, Young Doctrines) and Namin(南人, Southerners) under the strong might of Noron. Therefore, we shouldn't treat the characteristics of all Sarim(士林) in Cheongju area as a part of Seoin(西人, Westerners) nor think it was under the control of Hoseo-Sarim(湖西士林).